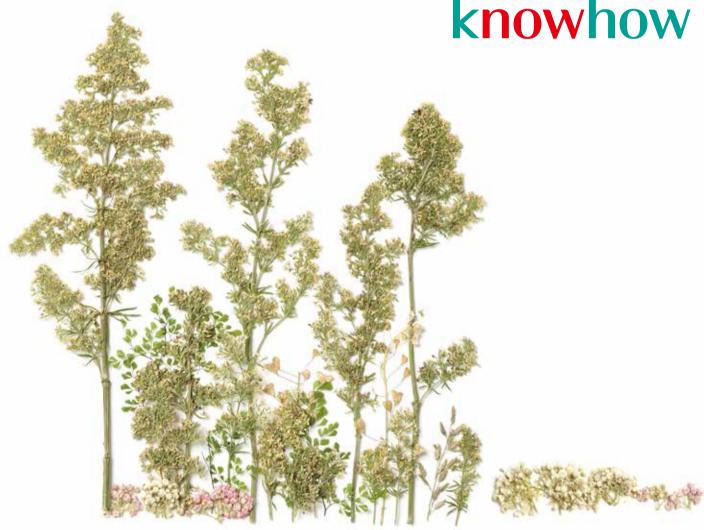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02

FEBRUARY 2017 vol.26 MONTHLY MAGAZINE



압화 방수정 작가 지품 '자유'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지고, 체력이 길러지면 삶의 어느 고비에서도 성큼성큼 가야할 길을 가는 궁극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2월, 자유를 위한 마음의 근육을 단련해야 할 때가 아닐까.

캘리그라피스트 이상현 작가

〈해를 품은 달〉〈타짜〉〈국순당 우국생, 백세주〉〈교촌치킨BI〉

2015. 한글날 기념 Google 한글로고 제작

2015. 한국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CPI협회)

사.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부회장,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한국미술협회 이사,

四世別 部門 大子を701

多对对部部第701

4的产资等增量数~3m/1







사랑의 열정이 식었다고 사랑이아닌가 열정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사랑에 대해 잠깐 이야기 해보자.

사랑의 요소인 열정은 호르몬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식어간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열정의 유효기간은 약900일, 즉 3년 남짓이라고 한다. 열정이 사라져감에 따라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면에서 영원한 사랑은 없다는 말은 진실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평생 동안 한 여자만을, 한 남자만을 사랑하며 백년해로 하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30년, 40년이 지난지금까지 그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고 표현한다면 고개를 갸우뚱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열정이 식은 그 자리에 친밀감과 책임감이 형성되어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면 어떨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열정이 식어도, 상대방 앞에서 더 이상 떨리고 두근거리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에 우리 모두 깊이 공감하는 이유는 열정의 또 다른 면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열정은 작은성취를 먹고사는 세포

사랑이야기를 접고 일이야기로 옮겨 보자.

앨런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를 보며 사람들은 그들의 열정이 대단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꿈도 없어지고 열정도 사그라져 드는 것을 느끼며 앨런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는 나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열정은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능력이 아니다. 열정은 세포와 비슷하다. 이 열정이라는 세포는 우리 몸 안의 세포와는 다르게 성취감을 먹이로 한다. 성취감을 먹이로 던져주면 열정 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 그 세력을 키우고 반대로 성취감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

재미있는 점은 이 열정 세포는 실패를 통한 좌절감보다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때 더 광범위하게 파괴된다는 것이다. 무기력이야 말로 열정 세포를 파괴시키는 주범인 것이다. 열정은 여러 작은 성취를 통해 조금 더 큰 성취를 이루도록 돕는다. 그렇게 조금 더 큰 성취를 이루다 보면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꿈을 말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력을 발휘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열정이 없다고, 열정이 식었다고 단언하기보다는 묵묵히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사랑을 꾸준히 지켜나가보자. 시간이 흘러 더 묵직한 무게감으로 삶이 가득 채워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7년 02월호 vol. 26

MONTHLY MAGAZINE. FEBRUARY 2017



08

행복을 주는 사람 | 석원자 알지오시니어아카데미 이사장

지난한 세월을 견디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시점이 오면 또 다른 변신의 욕망이 솟구친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한다. 이전과 다름없이 주어진 삶의 과제를 찾고,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미미하게,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은 나이간다고. 생이 그러하듯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 는 석원자 알지오시니어이카데미 이사장은 여기에 한마디 덧붙인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 면 더욱 그 여정이 의미가 있다고.



14

행복메신저 임은영 하나생명 마케팅부 팀장

특유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의 역량을 담담히 쌓아 나가고 있는 하나생명 마케팅부 임은영 팀장. 요즘 유난히 꽉 찬 일정으로 평소에도 바쁜 하루가 더 분주해졌다. 최근 페이백 보험의 원조인 하나생명 (무)행복knowhow Top3 플러스건강보험에 대한 문의로 눈코 뜰새 없이 바빠졌기 때문이다.

OPENING

O2 행복을 위한 질문

당신의 '열정'은 아직도 뜨거운가요?

INTERVIEW

o8 행복을 주는 사람

인생 2막, '함께의 힘'으로 세상의 빛이 되자

INFO GRAPHY •

1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고령층의 지급결제 수단 이용

하니금융경영연구소 월간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7년 02월호 vol.26 (통권 26호)

발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특례보 영등포, 리00424 등체 2015.01.27 제 행복Knowhow 캠 월간 발한 배현기 리턴 김대의 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발한 2017년 02월 09일 라마 02-2002-2200 제 ○ 02-2002-2610 출하기 www.hanaif.re.kr 라마금융경영연구소 │ 박지흥 연구원, KEB하나은행 │ 민경백 팀장, 최호재 팀장, 하나금융투자 │ 이정철 부장, 하나생명 │ 최춘석 차장제작빛계 톰커뮤니케이션즈 캠 02-3452-3789 출하기 www.teum.co.kr



30

연금포커스 비과세 연금보험 시장의 동향 및 향후 변화

노후 대비 든든한 금융 상품으로 비과세 연금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노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상품 출시 동향, 향후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등 비과세 연금 보험 상품에 관한 모든 것을 들여다 본다.



34

경제 이슈 | 트럼프의 6대 국정기조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지난 1월 20일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트럼프가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각에는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호에는 트럼프의 6대 국정기조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해 전격 해부해 본다.

행복미래설계

14 **행복메신저**

똑똑한 소통으로 '맞춤형 콘텐츠' 제공한다

16 H씨의 행복설계

자산포트폴리오의 적절한 조정과 은퇴 시기 연기가 필요

20 지식 플라자 - 세무

사랑하는 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는 법

22 지식 플라자 - 상품소개

국민연금 지원, 두루누리 제도

24 Do! Dream

웃음혁명 노땅개그

26 Anti aging

만성피로에서 벗어나는 법

28 Alone, together

시(時), 좋아하세요?

연금이슈포커스

30 연금 포커스

비과세 연금보험 시장의 동향 및 향후 변화

경제 TREND

4 경제 이슈

트럼프의 6대 국정기조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8 부동산 이슈

절세 및 자녀의 내 집 마련 지원 수단으로 부동산 증여 증가

GLOBAL

42 지구인 이야기

덴마크의 '휘게라이프'

FUTURE

44 은퇴, 버킷리스트

낯선 곳에서의 한 달 살기

Interview 행복을 주는 사람 글. 김지은 기자 kjeun1@naver.com 08 | **09**



석원자 • 알지오시니어아카데미 이사장

인생 2막, '함께의 힘'으로 세상의 빛이 되자

"살아낸 시간, 그것은 그의 재산이자 그의 독특함이다." 장 아메리는 말한다. 생의 거품을 제거하는, 생의 금칠을 덧입히는 방식이든, 저마다 나답게 잘 살기 위한 몸부림이 치열하다. 그렇게 지난한 세월을 견디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시점이 오면 또 다른 변신의 욕망이 솟구친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한다. 이전과 다름없이 주어진 삶의 과제를 찾고,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미미하게, 조금씩더나은 방향으로 삶은 나아간다고. 생이 그러하듯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석원자 알지오시니어아카데미 이사장은 여기에 한마디 덧붙인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더욱 그 여정이 의미가 있다고.

선살이 되면서부터다. 주저 없이 달리던 삶의 속도를 잠시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때가 그때 즈음이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싶었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눈가에 잡힌 주름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다.

"명색이 화장품회사에서 직원들을 교육하는 사람인데 생기 없는 피부, 주름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젊은 후배들에게 비켜줘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코리아나화장품에서 사내 강사로 주로 활동했던 그는 그때부터 인생 2막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화장품 업계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뷰티 업종으로 창업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은퇴 후 창업에 무작정 뛰어들었어요. 지금 돌아보니 은퇴 준비를 너무 기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혼자보다는 함께의 힘

퇴직 후 창업으로 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동안은 여느 퇴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불안과 초조함으로 힘들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실의에 빠져 지내던 시기였다.

"전 직장에 대한 미련이 쉽게 떨쳐지지가 않더라고요. 내 일보다는 회사 일이 더 궁금했죠." 퇴직 후 곧바로 피부관리실을 창업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160m^2$ (약 48평) 자리를 얻었다. 월 임대료만 250만원이었다. 각종 장비 등 시설비로 1억원 가까이 들어갔다. 거기에 인건비까지 합치니 월 1,000만원을 벌어도 남는 게 없었다.

"창업은 쉽지 않더군요. 그런 상황에 마음은 여전히 전 직장에 가 있는 겁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가야만 할 것 같고, 직장 동료를 다시 만나야만 할 것 같았어요. 퇴직한 뒤에 무엇을 할지만 고민했지, 그 뒤에 올 수 있는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많던 직장 동료들과도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 나는 혼자구나'라는 생각에 많이 힘들었습

Interview 행복을 주는 사람

10 | 11

니다. 퇴직이 곧 사람과의 단절처럼 느껴졌어요. 소속감이 없다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힘든 시기였어요"

불안과 방황의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 광고가 그의 눈에 들어왔고, 사이버대학교의 실버산업학과에 편입했다. 노년학, 시니어의 복지, 선진 사례, 여가, 건강 등 수업을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안정되니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처럼 방황의 시기를 겪는 퇴직자들, 시니어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난 후 삶의 의욕이 샘솟기 시작했다. 의욕 덕분인지 점점 머릿속의 생각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석 이사장은 시니어가 진짜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 공부해서 직접 강사로 나서아겠다는 생각을 했고, 시니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그때부터 시니어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려고 본격적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6개월 정도 걸렸다. 2014년 8명의 조합원과 함께 '알지오시니어아카데미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참여하는 멤버 대부분이 시니어 강사로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기들이다. 공무원 전문 강의부터 모바일 콘텐츠 제작까지 다양한 역량을 지닌 구성원들로 멤버를 채웠다.

"50+의, 50+에 의한, 50+를 위한 소통 가능한 강의와 강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한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혼자서 강의하려면 찾아다니기도 힘들고 오라는 데도 잘 없어요. 시니어가 함께 모이니 얻는게 참 많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에스제이엠(SJM)에서 은퇴 예정자 교육을 3주 정도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시민과 미래라는 조직을 통해 헌법 읽기 수업도 진행했어요." 협동조합은 어딘가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 혼자서는 무력했던 시니어가 함께였기에 경험할 수 있었던 시너지 효과였다.

'다복회'로 행복 더하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은퇴 후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석 이사장은 일 외에도 공을 들이는 분야가 있다. 바로 가족이다.

은퇴 후 삶의 기쁨을 채우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관계일 것이다. 석 이사장은 관계 중에 서도 가족, 친지들과의 관계 회복에 애정을 쏟고 있다.

"다복회라고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저희 가족모임이에요. 저는 7남매 중 다섯째지만 자녀는 아들 둘뿐이라 외롭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살아갈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의미를 되찾고 싶었어요. 시작하고 보니 이제는 제 생애 큰 보람이기도 해요. 73명, 5대손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감동이 큽니다. 퇴직 후 가정으로 귀환하는 모든 분께 가족을 위한 가족 커뮤니티 활동을 꼭 해보시길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은퇴자들에게 권하는 교육

석 이사장은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공부'를 강조한다.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 그램에 참여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소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중장년 50+ 누구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곳으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을 꼽을 수 있다"며 "퇴직교육, 일자리, 인문학, 사회공헌, 민주시민교육 등 콘텐츠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조언한다. 이 밖에도 각 지역 자치구, 50플러스캠퍼스. 50플러스센터도 활용할만 하다고 권한다.



50+활동가로 세상의 '빛'이 될 것

공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석 이사장의 앞으로 계획이 궁금했다. 그는 "장 기적으로는 건강관리를 더욱 열심히 해 건강하고 적극적인 '50+활동가'가 되고자 한다"며, "50+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퇴직 후 마을로 귀환한 50+활동가와 자치구 일반시민의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민주시민의 눈으로 보는 우리 마을 자치구 알기' 파일럿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이 프로젝트는 알지오시니어아카데미협동조합. 유관 비영리단체인 시민과 미래가 함께기획해 진행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석 이사장은 시니어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각자의 영역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왔어요. 이제 인생 2막에서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 시니어들이 함께 뭉친다면 세상에 '빛'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도전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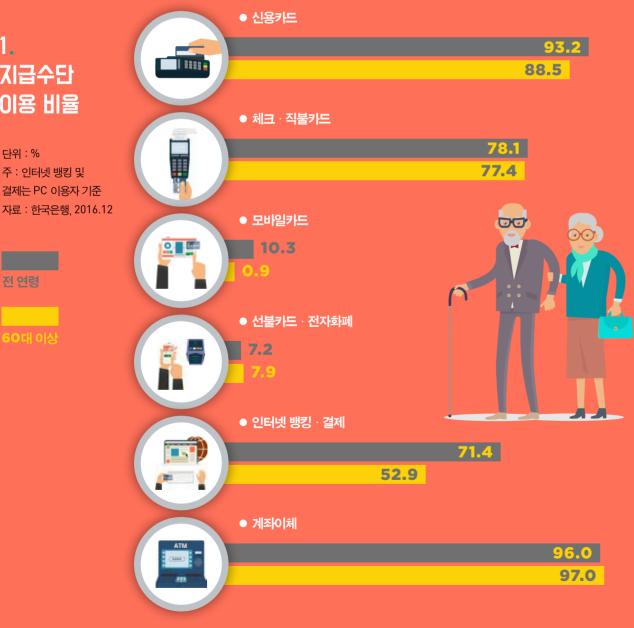
지금별제 수타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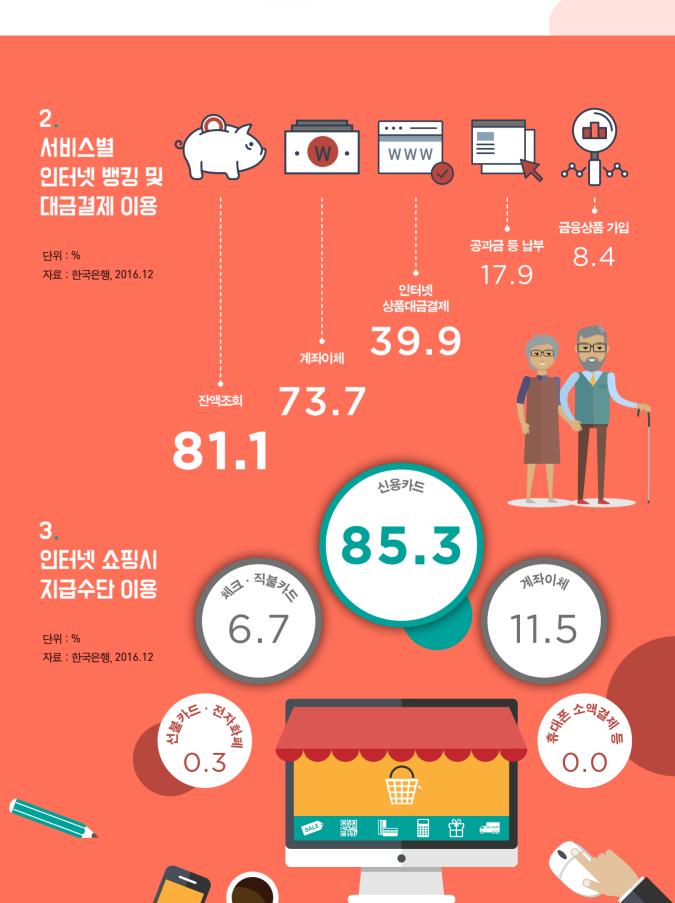
고령층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가장 선호하고 있지만 최근 인터넷 뱅킹 및 대금결제 서비스 이용률이 빠르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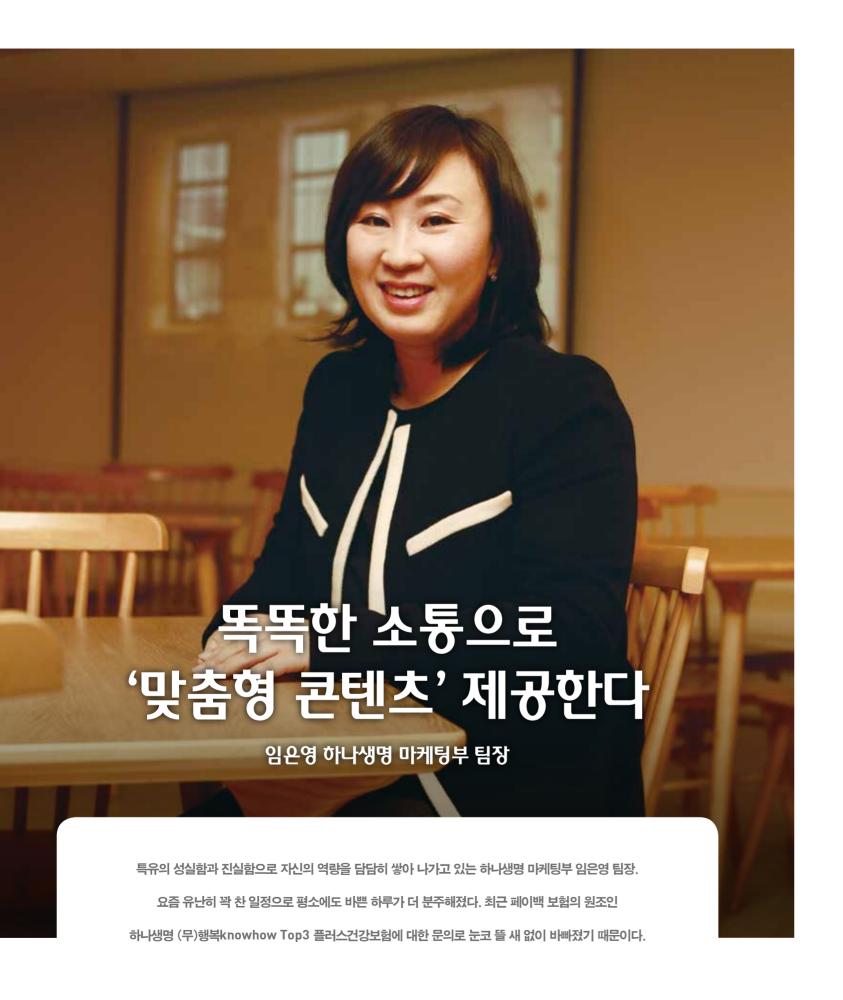
지급수단 이용 비율

단위:% 주: 인터넷 뱅킹 및 결제는 PC 이용자 기준





행복미래설계 **행복메신저 글.** 김지은 기자 kjeun1@naver.com 14 | **15**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주목하는 상품인 페이백 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면 낸 보험료만큼 돌려주는 연금 기능에, 주요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 하이브리드형 보험으로도 불리고 있어요. 저희 하나생명 (무)행복knowhow Top3 플러스건강보험이 원조다 보니 인기가 높아요."

비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임은영 팀장은 현재 KEB하나은행 기준 용산마포영업본부, 종로본부와 기업은행, 농협은행 지점 방카슈랑스 교육 진행과 마케팅을 담당한다. "각 지점의 방카 판매인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함께 소통하며 그들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강의하고, 상담하는 업무가 중요한 만큼 바쁜 일정을 쪼개어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다. 명강사를 찾아다니며 팁도 얻고 정보도 얻는 수고도 마다치 않는다. 프레젠테이션 창작에도 열심이며, 나만의 콘텐츠로 소통하기 위해 부단히 실력을 연마하고 있다. 임 팀장은 "자기 일에 만족하는 사람, 임은영 하면 명강사라고 떠올릴 수 있도록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다"며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H14/21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고객들의 경우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인 본인들은 아무래도 노출을 피합니다. 가명을 쓰고 있는 연예인 면담을 가서 본명을 알게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연예인 부부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가입한 것을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도 많이 받습니다. 엄청난 고액 자산가를 만나기 전 잠 한숨 못 자고 긴장하고 방문했는데, '비과세고요~'라는한마디에 싸인 하셔서 긴장이 풀린 적도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TIP

1. 현재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84세인 평균수명이 2년마다 한 살씩 늘고 있다.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다. 국 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낮은 물가상승률이나 인구구조의 변화등으로 미루어볼 때 아파트 등 부동산은 더 이상 재산의 개념 이 되지 못한다. 부동산만으로 미래 수익을 보장받는데는 한계가 있고, 물가상승률 만으로는 길어 지는 미래의 노후를 준비할 수 없다.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재정립하고, 자산의 일부를 채권형 펀드라도 투자형 상품에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3.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장성 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등한시 하게 되는 것이 건강수명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수명도 지켜야 한다. 그만큼 보장성 보험의 준비도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치병이 아닌 난치병의 시대 가 온다. 모아 놓은 노후 자금을 병으로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행복미래설계 H씨의 행복설계 글, 하나생명·하나금융경영연구소 16 | 17

자산포트폴리오의 적절한조정과 은퇴시기연기가필요

H씨는 현재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다.

슬하에는 대학원생인 31세 자녀가 있다.

H씨는 그동안 영위했던 자영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도 축적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현재 하는 자영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대학원생인 자녀의 교육비용과

결혼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미래는 불안하다.

H씨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자녀 교육비 및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우려 존재

H씨(만 58세)는 현재 남편(만 58세)과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다. 슬하에는 대학원생인 31세 자녀가 있다. H씨 가족은 현재 6.0억원 상당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 투자 목적의 실물자산 1.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자산으로는 예/적금 5,000만원이 있으며, 부채로 는사업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1.5억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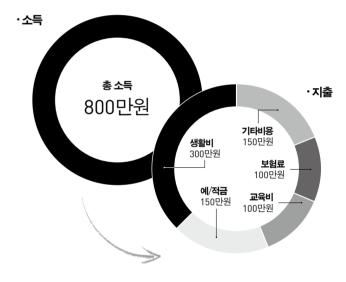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소득으로 월 800만원의 수입이 있으며, 지출은 생활비 300만원, 예/적금 150만원,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100만원, 기타비용 150만원이 있다.

H씨는 그동안 영위했던 자영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도 축적했다. 그렇지만 현재 하고 있는 자영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사업의 특성상 미래에도 안정적이라는 보장이 없다. 또한 대학원생인 자녀의 교육비용(2,000만원 예상)과 결혼비용(2억원 예상)까지 고려할 경우 원하는 시기에 은퇴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할지 고민이다.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ㆍ자산	아파트	6.0억 원
	기타실물자산	1.5억 원
	예/적금	0.5억 원
• 부채	주택담보대출	1.5억 원

• 순자산 6.5	5억 원
------------------	------



현금 파이프라인 부족을 생쇄시킬 방안 마련이 필요

H씨는 자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은퇴 시점이 명확하진 않지만 대략 65세에서 70세 정도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한다. 본지에서는 분석을 위해 은퇴 시점을 65세로 설정했다. 현재 H씨는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은퇴 후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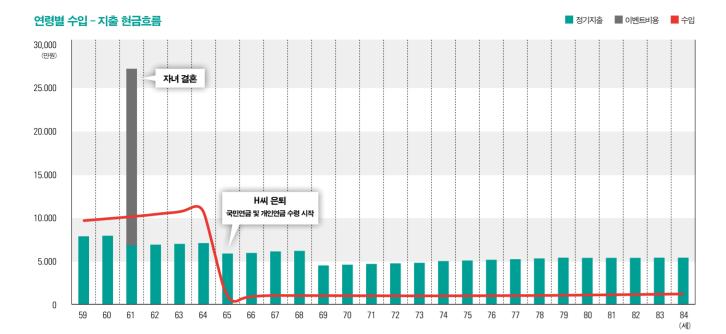
현금흐름 파악을 위해 미래 수입 구조를 살펴보자. 우선 만 65세부 터는 월 35만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월 40만원 상당의 개인연금을 만 65세부터 20년간 수령할 계획이다. 그 외에 별도 연금수입은 없다. 다음으로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향후 2년 동안 대학원생자녀의 교육비가 발생하며, 약 1.5억원 규모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연 1,800만원 규모의 대출 원리금이 10년간 발생한다. 이후에 는 생활비 위주의 지출만 있다.

구체적인 은퇴 준비 상태 파악을 위해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호름¹¹을 살펴보면, 은퇴시점인 만 65세 전에는 잉여 자금이 발생하는 구간이나 61세에 자녀 결혼으로 인해 큰 규모의 지출이 발생한다. 65세 이후로는 지속적인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68세까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액이 있어 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자금 부족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¹⁾ 물가상승률은 2.0%를 가정하고 수입은 소득에 연금 수급액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보험료, 교육비 등이 포함.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하여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행복미래설계 **H씨의 행복설계** 18 | **19**



아파트 외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와 함께 은퇴 시기 연기

또는 주택연금 활용이 요구

H씨가 현재 상황을 유지한 채 65세에 은퇴를 하게 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을 활용하지 않고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어렵다. 실물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금융자산으로만 생활을 할 경우 요구되는 금융자산 수익률이 40%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재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7.7%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의 수익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산포트폴리오의 조정, 은퇴시기 연기, 주택연금 활용, 기존 지출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본지에서는 자산포트폴리오의 조정과 은퇴시기 연기, 주택연금 활용을 통해 H씨의 노후설계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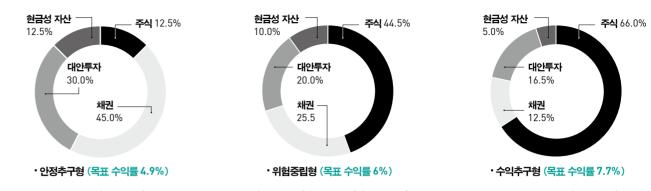
첫 번째는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이다. H씨는 아파트를 포함한 실물자산으로 7.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논외로 할 때 1.5억원 규모의 기타실물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부채로 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1.5억원이며, 향후 지출 부문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감안하여 기타 실물자산을 현금화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데사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여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이 해소될 경우 현상황보다 미래 현금흐름이 개선된다. 아파트를 금융자산화하지 않고 위의 방안만을 사용하면 금융자산의 목표수익률은 약17%로 낮아진다. 하지만 여전히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운용수익률로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가용한 방법으로는 으퇴 시기를 연기하는 것과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있다.

H씨의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은퇴 시점 조율이 수월하다. 은퇴시기를 조금만 연기하더라도 다른 방안에 비해 미래 현금흐름이 개선되는 폭이 크다. 현재 65세로 예상하고 있는 은퇴 시점을 70세로 연장하면 금융자산의 목표 수익률은 2.18%로 낮아진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의 목표 수익률은 4.9%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달성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 자녀 결혼 시기인 61세에 금융 자산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는 운용 수익률이 낮아져 향후 2년간 축적되는 금융자산이 2억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61세에 일시적인 금융자산을 확보하거나 예상 결혼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은퇴시기를 조율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활용해볼 수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활용해 만 65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 매월 약 16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필요 금융자산의 수익률은 4.41%가 된다. 이 수익률은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보다 낮으므로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연금을 활용할 경우 자녀에게 상속 해줄수 있는 자산은 없게 된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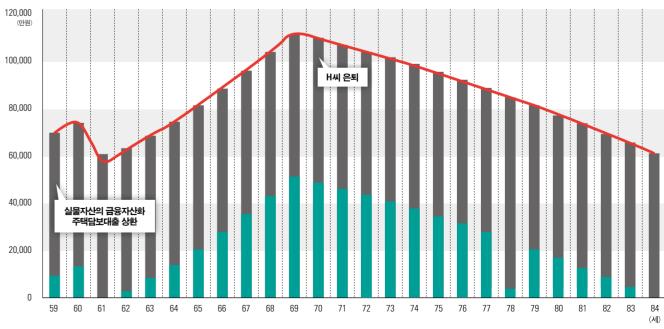
• 주 :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월 투자성항에 따라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수입추구형' 포트폴리오를 제시 • 자료 : 하나금융투자, '머니TALK', 2017.02

H씨는 그동안 자영업을 해오면서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을 축적했다. 하지만 은퇴 후 연금 형태의 현금 파이프라인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일부 조정하고 은퇴시기 연기 또는 주택연금 활용이 요구되었다. 다만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자녀에게 상속해줄 수 있는 자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퇴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H씨의 경우 직업의 특성상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며, 미래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해 향후 금융자산의 목표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안주하기보다는 정기적인은퇴 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은퇴 설계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 금융자산 ■ 부동산자산 ■ 순자산





2) 본 그래프는 은퇴시기를 연기한 것을 가정

행복미래설계 지식프라자 - 세무 글. 이환주 KEB하나은행 WM사업단 세무사 20 | 21



사랑하는 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는 법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에 주택을 마련해주려고 하다가 증여세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심지어는 자녀의 이름으로 전세를 얻게 되는 경우에도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증여세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성년인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린 자녀에게 목돈을 줄 경우 자녀의 태도에 안 좋은 영향 등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지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10년 간격으로 꾸준히 증여를 해왔다면 증여세의 부담 없이도 자녀가 만 31세가 되었을 때 최대 1억 4,000만원을 마련해 줄수 있다.** 왜냐하면 2014년도부터 증여재산공제의 한도가 늘어나 미성년의 경우는 2,000만원, 성년의 경우는 5,000만원으로 확대 되었기 때문에 미성년일 때 2,000만원씩 2번을 증여하고, 성년이 되었을 때 5,000만원씩 2번을 증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주택기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금이약 3억 66만원으로, 자산증식까지 감안하면 결혼을 앞둔 시점에 수도권 전셋집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자산,

효율적으로 증여하려면?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10년 만기의 적립식 상품(펀드나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신고는 최초에 불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신고를 하면 된다. 적립식 상품을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증여가액을 평가하게 되므로 더 유리하다. 할인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매달 최대 19만원씩 10년간 자녀 앞으로 넣는다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3.5%)로 할인받아 증여가액 2,280만원은 약 1,962만원으로 계산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둘째, 기존에 가입한 주식형 펀드 중 시장 상황 악화로 손실이 많이 나 환매를 못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펀드를 증여하고자 할때는 애초의 원금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펀드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펀드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그만큼 증여세를 절세할 기회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증여한 평가액이 증여세 면세점(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자금출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손실 난 펀드의 경우 증여한 이후에 손실에서 회복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은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할아버지

VS.

0|버지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하는 증여 재산공제액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은 직계존속으로 분류되는 조부모와 부모 모두로부터 10년간 1회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 직계존속 1인당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닌 받는 사람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 같은 직계존속으로 분류가되기 때문에 한 번만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한 경우라면, 할아버지가 또 다시 2,000만원을 손자에게 준다면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2,000만원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30% 더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증여할 계획이라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먼저 증여를 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증여해야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납부하지 않게 된다. 부모가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언제부터 주는지에 따라서 세금부담의 차이가 크다.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나눠서 준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없지만, 성년이 되어서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금액일지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조금씩 젊은 부모들을 중심으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한다. 부모가 자녀명으로 적금 등에 가입해주는 것도 좋지만, 매달 자녀의 손을 잡고 은행에 방문하여 어려서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한 번 증여 시 10년이 지난후에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10년 단위로 장기투자 및 자산관리(증여)를 계획하고 이를 자녀와 함께 만들어간다면 자녀에게 이보다 좋은 선물은 없지 않을까.

행복미래설계 지식프라자 - 상품소개

국민연금 지원, 두루누리 제도

기대여명의 증가로 노후 빈곤위험에 대한 노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책당국은 국민들이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노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 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 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를 2012년 도입하여 대상 및 지원 폭을 확 대하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제도는 사회보험의 혜택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 득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 지원 제도이다. 두루누리 제도는 2012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2016년 1월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 로하고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월평균 보수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책당국에 의하여 매년 결정된다. 대상자 중 선정기준은 지원 신청일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직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 이어야 한다. 또한 지 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중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될 경우 근로자 및 사업자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의 보험료에 대하여 기존 가입자의 경우는 40%의 지원을 받게 되고. 신규 가입자의 경우는 60%까지 지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며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나 관련 사업자들은 노후 안정된 생활 등을 위하여 두루누리 제도의 적극적 인 활용 및 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입은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각 지시를 방문하 거나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두루누리 제도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임금수준은 매년 근로 및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됨	
선정기준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증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원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서비스 내용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분담금의 최대 60%까지 지원 (기가입자 40%, 신규가입자 60%)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시필 제16-06222호(2016.12.19~2017.11.30)



유언장의 빈틈을 채우는 든든한 유산플랜 하나 Living Trust

유언장 없이도 고객의 생전에 신탁계약을 통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생전에도 신탁에 의한 재산관리가 가능하며, 고객님 사후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된 후에도 고객님(위탁자)의 의지대로 재산관리 및 운용까지도 할 수 있는 든든한 신탁계약상품입니다.

유언장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생전•사후 재산관리가 가능하며 원하는 상속인에게 안전하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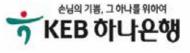
상속플랜에 따라 수익자를 연속하여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종합하여 운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합니다

법률상담, 세무상담, 부동산건설팅 등 상속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합니다

※ 산탁보수:산탁재산가액 및 관리내용에 따라 차통 적용(기본보수 및 집행보수 : 중 신탁가역의 0.2%이상, 개봉산탁보수는 개발계약서에서 정함)

- ※ 금융투자상품(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당행은 본 금융투자상품 산탁계약 약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직원으로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 계약하시기 전에 운용방법의 지정, 해지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신탁계약처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본 홍보물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민감시인 성사원 2016-광고-339호(2016,12.02-2017,11.30)/CC보전도161202-10



행복미래설계 Do! Dream 글. 김지은 기자 kjeun1@naver.com 24 25

최근 시니어들이 젊은이와 소통의 끈으로

유머와 위트에 도전하고 있다. 일명 노땅개그다.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유머.

아직도 '나는 원래 유머 감각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유머 감각은 노력하면

진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지금 도전해보자.

웃기는 시니어, 노땅개그의 세계로~

《신개념 장수법》 '00하면 100세까지 산다'에서 00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금주. 금연. 운동. 소식 등을 생각했다면 모두 오답!

WHITE THE PARTY OF THE PARTY OF

WIIII III

정답은……

'웬만하면'의 '웬만'이다!

유머 사.용.설.명.서

최근 임기가 끝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유머러스한 정치인으로 통한다. 그가 소통의 달인으로 꼽히는 이유는 그만의 유머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왜 유머가 <mark>중요할</mark>까.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인생이 엄숙하면 엄숙할수록 유머가 필요하다" 는 명언은 이를 잘 설명한다.

오바마의 유머는 단순히 웃기는 말과 행동을 뜻하는 게 아니다. 오바마는 유머로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한다. 단순히 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유머로 더욱 심오한 주제를 편히 받아들이고 함께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백악관에는 대통령 유머를 담당하는 전담팀이 꾸려져 있을 정도로 유머 정치는 중요하다.

유대인의 유머 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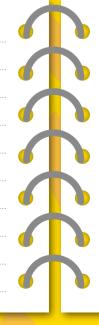
유대인의 유머 감각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머감각 덕분이다. 유머는 폭넓은 상상력과 기지를 필요로 하며, 감정을 예리하게 하여 상상력을 길러준다. 또 두뇌의 빠른 회전을 요구하기도 한다. 기발한 영감은 착실하고 바른길로 가는 성격에서는 잘 생겨나기 어렵다. 유대인은 상상력이 부족한 경직된 두뇌를 싫어한다. 박해의 역사를 겪어온 민족이면서도 '웃음의 민족'으로 알려진 유대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농담을 주고받고 함께 웃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LIOI 들수록 유머 감각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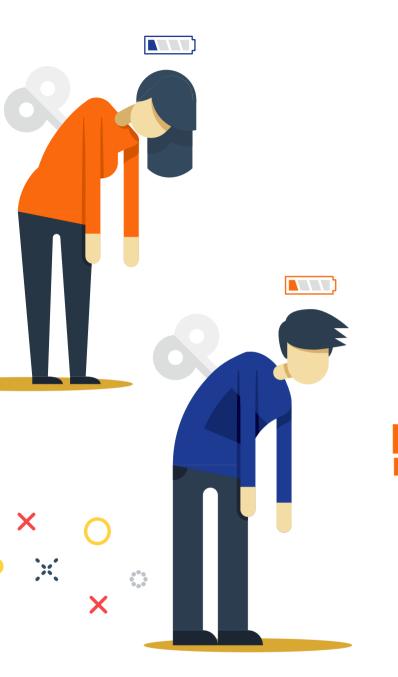
나이 든 사람일수록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매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좋은 관계를 맺는데 유리하다. 나이가 들수록 어려운 가족, 친구, 사회와의 소통, 유머로 기름칠을 해보자, 한결 수월할지도 모른다.

어떻게 유머 감각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우선 유머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인기 개그 프로들을 보면서 유행어를 찾고 인터넷 유머 게시판이나 유머책을 교본으로 삼아 때와 장소가 적절할 때 활용해 본다. 유머 노트를 만들어 기록하다 보면 창작의 경지까지 이를 수 있다고. 평소 개그맨들을 유심히 관찰해보자. 개그맨들은 남의 말 듣기에 귀 기울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웃음의 정곡을 찌른다. 또 빈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남을 웃기려면 자신이 먼저 빈틈을 보여줘야 한다. 스스로 허술한 면이 있는 사람이란 걸 보여줘야 상대가 마음을 열기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머를 잘하려면 상대의 반응을 잘 살펴야 한다"며, "상대가 자신의 어떤 말에 웃는지 또 어떤 유머를 좋아하는지를 파악하여 그 반응에 맞춰 유머를 개발한다면 뛰어난 유머 감각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01. 잘 듣고 많이 웃어라
- 02. 끝에서 뒤집어라. 반전은 유머의 생명이다.
- 03. 좀 망가져라. 실수가 웃음을 부른다.
- 04. 신문을 읽어라. 개그맨들은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서 개그 아이템을 찾는다.
- 05. 다양한 대화를 즐겨라. 다양한 사람을 만나 평범한 대화를 즐기면서 웃음의 소재를 찾아라.
- 06. 유머, 최소 하루 2~3개는 외위라, 웃음도 전략이다. 외운 것은 즉시 활용해본다.
- 07. 개그 프로그램, 유머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26 | 27 행복미래설계 글. 박지연 기자 pjy95@naver.com Anti aging





'만성피로'를 잡이라!



만성피로에서 벗어나는 법

자도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만성피로가 계속되면 짜증도 나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만성피로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588명 이었다. 이중 50대가 21.5%로 환자수가 가장 많았고, 40대가 18.9%, 30대가 17.3%로 뒤를 이었 다. 만성피로증후군은 특별한 이유나 원인이 될 만한 병이 없는데도 피로감이 6개월 이상 만성적으 로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전체적인 나른한 느낌, 두통, 어깨, 목 결림, 전신 무력 감, 발한, 저항력 약화 등이 나타나며 집중력 저하, 정서 불안, 의욕 저하 등 정신적인 형태를 보인다. 만성피로의 원인은 무엇일까. 대부분 반복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것이며, 남성 갱년기, 부신피 로(스트레스 조절에 영향을 주는 부신호르몬의 부족에 따른 피로) 등의 질환, 우울증, 불안증 등의 정 신질환이 주원인이다. 또한 영향의 불균형과 육아에 따른 수면 장애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만성피로 증후군 진단기준

만성피로증후군 의심단계

-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만성적인 피로증상
-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해도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
-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일을 줄여도 피로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때
- 피로 증상에 따라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만성피로 증후군 진단단계

- 기억력 및 집중력 감소
- 평소와 다른 두통
- 목이나 겨드랑이 임파선의 비대 및 통증 잠을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을 때
- 인두통, 근육통, 관절통
- 평소와 달리 운동 후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피로감

■■■ 만성피로 타파하기

1.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자

평일에는 불규칙적으로 수면을 하고, 주말에 밀린 잠을 몰아서 자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 럴 경우 월요일은 더욱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 수면 패턴을 갖도록 노력해보자.

2. 물을 1.5~2L 정도 마시자

우리의 몸은 수분이 2%만 부족해도 무리가 간다고 한다. 목이 마르면 커피나 차, 음료수를 마시 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는 약간의 탈수증상이 생겨 혈액양이 감소하는데 근육과 장기에 혈액이 도달하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하루 평균 1.5~2L의 물을 마시는 습관 은 만성피로를 예방하고 없애는 방법 중 하나다.

3. 점심식사 후 30분 이상 산책하기

점심시간 즈음의 햇살은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식사 후의 피로감을 해소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 다. 바쁘더라도 하루 30분 이상의 산책을 습관화해보자. 규칙적인 운동만큼 피로를 줄이고 활 력을 불어넣는 것도 없다.

4. 하루 한 끼 이상 집밥 먹기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등 인스턴트 음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생활이 계속되면 높은 설탕과 탄 수화물로 인해,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사회생활로 외식이 잦더라도 하루 한 끼는 꼭 건강한 식단의 집밥을 챙겨먹자.

5. 만성피로 해소에 좋은 차 마시기

인삼, 구기자, 오미자를 넣은 한방차는 피로감을 해소시켜주고, 간기능을 높여준다. 인삼 12g, 구기자 12g, 오미자 4g에 물 한 사발을 붓고 한 시간 정도 달여서 수시로 마신다.

ス] (時), 좋아하세요?

유난히 시(時)에 관한 관심이 높다. 다들 삶의 무게가 힘겹고 버거운 탓일까.

삶이 굳고 생각이 엉킬 때마다 시를 읽어 보자.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잔잔한 물결이 된다.

시를 잊은 그대, 오래전 맘에 두고 잊고 지냈던 시 하나 꺼내 실컷 노래해 보는 것은 어떠한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기억하는가. 영화에서 키팅 교수는 시를 배우는 이유에 관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시가 아름다워서 읽고 쓰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일원이기 때문에 시를 읽고 쓰는 것이다. 의학 · 법률 · 경제 ·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시와 아름다움, 낭만과 사랑은 삶의 목적이다." 꼭 기억하자, 시와 아름다움과 낭만과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여야 한다는 것을. 암흑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시, 하지만 많은 이들은 쉽게 읽히지 않는 장르가 시라고 말한다. 짧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높은 사고력과 감성적인 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도 시를 읽으면서 단번에 많은 양을 소화해내긴 싶지 않다. 시 자체가 단시간에 읽는 소설이나 수필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시를 읽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와 가까워지기 어렵고 감성적인 면을 채우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윤동주 「서시」 중에서

짧은 구절에 담긴 숙연함, 조금도 특이할 것이 없는 말들로 이뤄진 이 시구가 주는 힘은 놀랍다. "이것을 제대로 신기해하는 일. 그 힘의 정체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일이 시를 만나러 가는 첫걸음이다"라고 시인 김사인은 '시를 어루만지다'에서 말한다. 설명. 분석, 분류를 떠나이 소박한 물음을 제대로 간직하는 것이 시를 읽는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시인 신경림은 "사람들이 시에 무관심하다기보다는 시와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처음 시귀기 좋은 시는 눈으로 읽어서 좋은 시보다는 소리 내어 읽기에 좋고, 남이 낭송하는 것을 들었을 때 좋은 시"라고 조언 한다. 최근 김용택, 정호승, 안도현 등 유명 시인들이 최근 애송시 선집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의 세계에서 벗어나 쉽게 읽히고, 듣기 좋은 시를 소개하면서 독자들을 시의 세계에 좀 더 가까이 초대하려는 의미 있는 움직인 것이다. 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점도 가끔 눈에 띈다. 신촌 시 전문 서점인 위트 앤 시니컬을 낸 유희경 시인은 "눈에 띄어야 본다. 봐야 친해진다"며 "시를 안 본다는 것은 시를 만날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이며, 발견성이 현저히 적은 시를 사람들 눈에 띄게 하고, 재밌어 보이게 만들고, 시집을 일단 펼쳐보게 하려고 시 전문 서점인 위트앤시니컬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시(時)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

OI. 겸허와 공경

시를 제대로 읽으려면 시 앞에서 일단 겸허하고 공경스러워야 한다. 그래야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한 편의 시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목소리와 빛깔과 냄새들이 나에게 와 닿는다.

02. 공감과 시는 본질적으로 옮고 그름이 아닌 아름다움의 문제다. 시를 읽거나 쓰는 일은 추상적인 개념을 매개로 한 논리적 추리, 분석이 아니라 실물적 상상력을 토대로 한 정서적 공감과 일치에 주로 의거한다.

03. 맛보기

일치의 능력

시를 읽는다는 것은 머리와 눈으로 활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온몸으로 온몸의 감각을 활용해 시를 이루는 소리, 말뜻, 행과 연, 시간을 어루만지고, 냄새를 맡고, 미세한 색상의 차이를 맛보는 일이다.

참고서적: 김사인 / '시를 어루만지다' / 도서출판(

연금이슈포커스 연금**포커스** 글. 정슝희 수석연구원 smiley77@hanafn.com

비과세 연금보험 시장의 동항 및 향후 변화

노후 대비 든든한 금융 상품으로 비과세 연금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노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수 있을까. 최근 상품 출시 동향, 향후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등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에 관한 모든 것을 들여다 본다.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여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연금보험은 노후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서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대체하여 평생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세제 혜택이 축소되기 전에 서둘러 비과세 연금보험의 가입을 고려해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의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 상품 출시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비과세 연금보험, 개인연금 자산의 64.8% 점유

현재 보험사에서 파는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들은 세제 혜택을 기준으로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며 연금 보험료를 연 1,800만원 이내로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400만원 한도)의 13.2%(소득세 12%, 지방소득세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까지 높아진다. 뿐만아니라 2015년부터는 연금저축보험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 연간 납입보험료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성 금융상품으로서 이들을 통틀어 세제적격연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특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상품이다.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보험료 총액이 2억 원 이하인 일시납 연금보험과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연금보험, 그리고 종신형 연금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보험사에서만 취급하는 상품으로서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즉 연금저축보험과 비과세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연금 상품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상품이나 세제상의 혜택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편 2016년 6월 기준으로 국내 비과세 연금보험 시장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9.7% 가량 증가한 203.3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개인연금 자산의 64.8%에 해당된다. 2016년 상반기 중 비과세 연금보험 시장으로 새롭게 유입된 보험료는 약 12조원이며 이 기운데 72.7%가 일반 정액형 연금보험으로 구성되는 등 변액 연금보험보다는 금리연동형 일반 연금보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저금리가 지속되고 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연금보험의 이율을 인하하는 추세로 이에 따라 최근 변액 연금보험의 판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비과세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

		세제적격연금	세제비적격연금
판매기관		은행, 증권, 보험사	생명보험사
판매상품		은행 : 연금신탁 증권사 : 연금펀드 보험사 : 연금저축보험	비과세 연금보험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없음
세제	납입단계	소득공제 (퇴직연금과 합산 연간 700만원)	없음
	수령단계	종합소득에 기산하여 과세 (총 연금소득 연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단, 일시납 보험은 2억 원 한도/ 월납 보험은 5년 이상 납입 시 해당)

자료 :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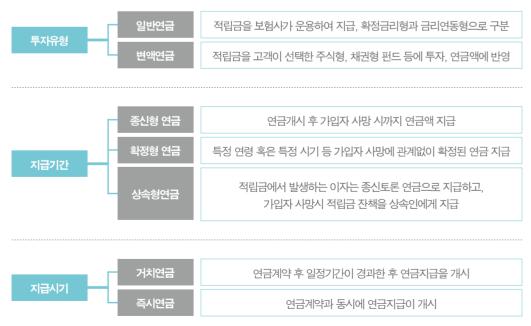
연금이슈포커스 **연금포커스 1**

최근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비과세 연금보험이 출시되는 추세

비과세 연금보험은 투자유형, 연금지급 기간, 연금지급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존재한다. 먼저 투자유형에 따라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사가 운용하여 지급하는 일반연금과 적립금을 고객이 선택한 다양한 펀드에 투자하여 투자실적이 연금액에 반영되는 변액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원하는 고객은 확정금리 혹은 시중 실세금리가 적용되는 금리연동형 일반연금이 적합할 것이며 저금리 및 물가상승률을 극복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액연금을 고려해 볼수 있다. 물론 변액연금의 경우에도 투자수익률이 악화되더라도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고객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보장하는 등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연금지급 기간을 기준으로는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신형은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중간에 해약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확정형은 10년, 20년 등 일정한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한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종신형, 상속형보다 연금수령액이 높고 해지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연금수령기간 종료시점에서 상속형과 달리 남아 있는 원금이 없다. 상속형은 원금은 그대로 놔둔 채 이자만 연금으로 받는 형태로 절세와 상속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수령 방식은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 가입시점에 종신형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연금 개시시점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확정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비과세 연금보험의 다양한 유형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금지급 시기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거치 후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거치연금과 목돈 납입 후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이 있다. 거치형의 경우 거치기간 중에 복리로 이자가 지불되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시점에 연금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다. 즉시연금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제도가 있어서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잠재적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밖에도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보다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지난해 생명보험협회에서 우수상품으로서 몇 달간 독점 판매권(배타적 상품권)이 부여된 연금보험을 위주로 살펴보면 먼저 가족 생활보장을 강화한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살아있을 때 생존연금을 수령하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유가족이 동일한 연금을 20년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었다. 장기간 유지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상품도 개발되었는데 동 상품은 사업비 체계를 개선하여 오랫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고객은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가입 후 5년, 9년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각각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1%와 2%를 보너스 형태로 적립금에 더해준다. 변액연금으로는 금리와 투자수익률에 관계없이 가입 당시 확정된 금액을 평생 보증하는 상품이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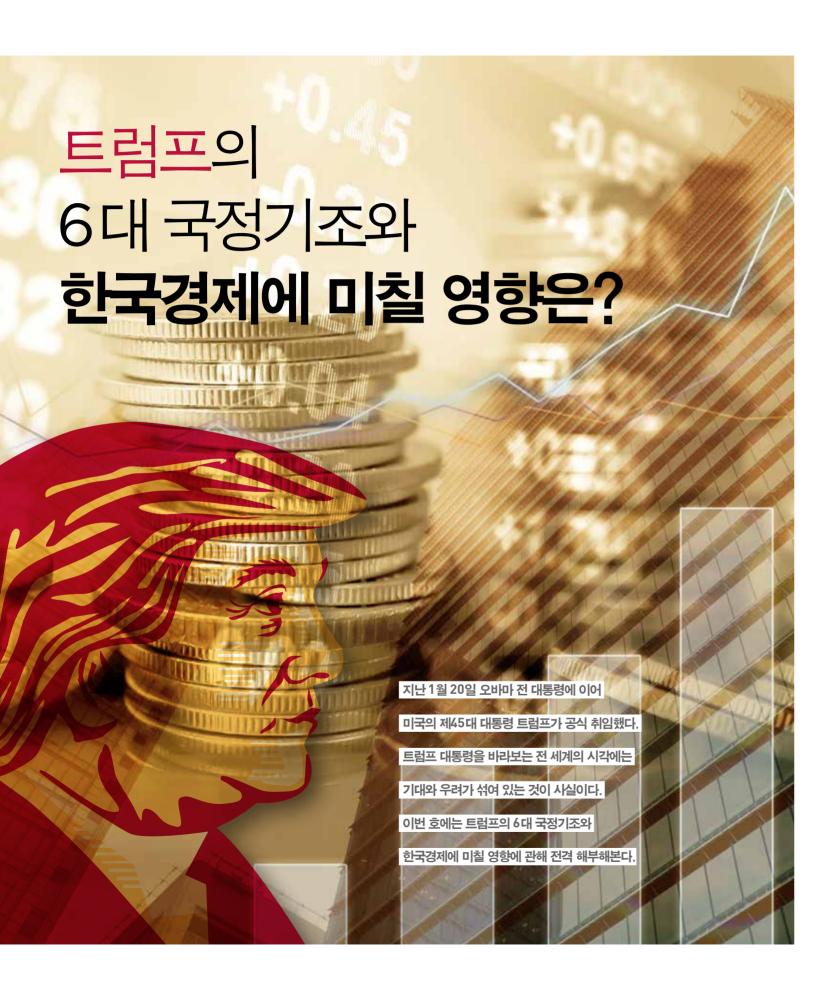
오는 4월부터 비과세 혜택이 대폭 축소될 예정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 연금보험을 포함한 장기 저축성 보험의 세제 혜택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먼저 일시납 보험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기존 2억 원에서 1 억 원으로 축소된다. 월 적립식 보험은 기존에는 특별한 한도가 없이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 하면 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었으나 향후에는 월 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 종신형 연금보험은 기존의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의 전반적인 고령화 정책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동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즉, 기존과 같이 연금보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4월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갑작스레 비과세 연금보험의 가입을 고려해보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최소 15년 이상의 초장기 금융상품으로서 중간에 해약할 경우 고객이 입는 손실이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 큰 편이다. 따라서 단지 제도가 변한다고 해서 급하게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연금보험은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입해야 한다. 노후 필요자금을 고려하되 현재 가계에 부담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결정하고 끝까지 유지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시점에 보다 신중하게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경제트렌드 **경제이슈** 글. 김영준 연구위원 kimekono@hanafn.com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각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트럼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행정경험이 전무한 '아웃사이더'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각에는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기성 정치에 반감이 큰 백인 중장년층과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는 트럼프가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아주고 미국을 다시 강하게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유색인종과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차별의 벽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 원칙 : Buy American, Hire American 트럼프는 취임사를 통하여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한 철학을 내비쳤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America'라는 단어를 총 35차례나사용하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추구할 것임을 숨기지 않았으며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한다(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에너지, 외교, 고용, 군사, 법, 무역과 관련된 6대 국정기조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도 전 분야에 걸쳐서 '미국 우선주의'가 강하게 적용 되고 있다.

먼저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셰일가스 및 천연가스 등 화석 에너지 생산을 확대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에서 억제됐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화석 에너지 산업 강화로 향후 7년간 300억 달러 이상의 임금상승 효과와 40년 동안 6조 달러의 누적 세수 증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프라투자와 감세, 규제완화를 통해 연평균 4%의 성장률 추진 고용회복 및 성장과 관련해 향후 10년간 2,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평균 4%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10년간 1조 달러를 교통, 항만, 수로 등 인프라에 투자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상속세 폐지 등 '친성장' 세제개혁을 통해 기업이익을 도모하고 소비를 자극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장기회를 제한한다며 기존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언급했다.

무역협정부문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즉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미래에 새로 맺을 무역협정도 강경한 태도로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무역협정이 미국에 고소득 일자리를 가져다주고 우리 경제 중추인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중국 등 대규모 대미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에 대해 징벌적 상계관세 부과, 슈퍼 301조 부활, 환율조작국 대응 등 무역보복도 시사했다.

경제트렌드

36 | 37

미국 행정부의 주요 무역구제 수단

경제이슈

수단	근거법	내용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세법	최대 45%의 징벌적 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무역법 제201조	관세부과, 수입량 제한 등
불공 정 무역 행위 대응	관세법 제337조	수입금지 및 중지명령
301조	무역법 제301조, 종합무역법 제1302조, 1303조	양자협상, 관세 부과, 수입제한,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혜택 유예 등
국제수지 위기 대응	무역법 제122조	최대 15% 관세인상 등(최장 150일)
국가안보 수입규제	무역확대법 제232조	관세 부과, 수입량 제한
<u>환율</u> 조작국	무역촉진법 제701조	대외원조 자금지원 금지, 미 정부와 조달계약 체결 제한, 무역협정 가입요건과 연계 등
대응	종합무역법	환율조작국과 양자협의, 협의사항 미이행시 적절한 제재조치 시행

자료: KOTRA

외교 및 군사정책: 국방력 등 힘에 의한 평화를 통한 미국 우선주의 달성

외교 정책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를 천명했다. 특히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급진 이슬람 테러그룹을 격퇴하는 것을 최우선 과 제로 꼽았으며, 북한과 이란 등 공화당이 주적으로 인식하는 국가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 로 보인다. 군사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능가하는 국방력을 보유하기 위해 국방력 강 화 및 첨단화가 목표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최첨단 미사일 방어체계 (MD) 개발이 주안점으로 거론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국방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 스터 · sequester)를 폐지할 것이며, 군재건 계획이 담긴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이버사령부의 공격적 · 방어적 역량을 개발하고 명석한 미국인들을 고용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러시아의 '미(美) 대선개입 해킹사태'에 따른 사이버 전쟁 대비책도 제시 했다. 뜨거운 감자인 '국경장벽 설치'는 주요 공약으로 남겨졌다.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 을 근절하기 위해 국경장벽을 설치하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기존입장을 고수 한 것이다. 국경장벽 설치뿐만 아니라 취업 비자 프로그램을 새롭게 정비하고, 난민 수를 엄격 히 제한할 것임을 천명했다.

공화당도 오바마케어 폐지, 규제개혁, 조세개혁, 인프라개혁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지원

트럼프 정부의 6대 국정기조와 더불어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간 추진할 주요정책 입안구상을 제시했다. 매카시 하워 원내대표는 22일 라디오 인 터뷰를 통해서 '오바마케어 폐지, 규제개혁, 조세개혁, 인프라 개혁' 등 4대 핵심개혁을 우선적 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 · ACA)를 즉시 폐지하고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을 도 입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형규제가 시행되기에 앞서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한 이른바 '고삐 법안'(REINS Act) 통과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의 경제성장 엔진이 다시 가 동되고 중산층도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세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인프라구조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재확인하겠다고 밝혔다.

66 현재 미국의 인프라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 항만, 수로 등 인프라에 대한 재정투자는 미국경제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투자로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이 기대되나,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 배제 못해

트럼프 행정부는 4%대 성장률 시대를 재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연준 등이 추정하고 있는 잠 재 성장률은 2%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부양을 통한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주류 와 적정선에서 타협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부양은 정부안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의 인프라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 항만, 수로 등 인프라에 대한 재정투 자는 미국경제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도 미국경제는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다만 재정부양은 미래의 성장을 끌어오는 것으로 중 장기적인 재정적자 확대와 인플레이션 압력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이에 따라 미(美)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압박이 우려되며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재확인됨에 따라 국내 경제에서는 무역부문의 부정적 인 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의회와의 재정부양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재정정책보다 대통령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무역 및 외교부문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로 무역 불균형 구조에 대한 시정압력을 강화할 경우 대미 수 출회복 지연 및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수출의 경기견인력 약화가 예상된다. 특히 대미 흑자규모가 큰 자동차 산업(2016년 기준 176억 달러 흑자)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우 려된다. 또한 간접적으로 글로벌 교역감소와 미중 무역관계 악화 등이 국내 수출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4월과 10월 미(美)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전후하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트렌드 **부동산 이슈** 글. 손정락 연구위원 urbang@hanafn.com 38 | **39**



절세 및 자녀의 내 집 마련 지원 수단으로 부동산 증여 증가

최근 부동산 증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부동산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절세가 가능하고, 자녀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 증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자산의 대물림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토지,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증여 증가 추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2016년 부동산 증여건수는 26.9만건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의 총 거래건수는 305만건으로 2015년 314 만건보다 2.9% 감소했지만, 증여 거래건수는 2015년의 25.1만건보다 7.2% 늘어났다. 특히 2014년 이후 부동산 증여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2013년과 비교할 때 2016년의 전체 부동산 및 주택 증여건수는 각각 33.8%, 48.6%나 증가했다. 2016년 증여 거래 중 토지 증여가 17.3만건으로 전체 증여의 64%를 차지했으며, 주택 증여가 8.1만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상가ㆍ건물 증여는 1.6만건 가량이었다.



부동산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절세 가능

부동산 증여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며 절세수 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와 사망 후 이전하는 상속은 동일한 세율(금액에 따라 10~50%)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재산 평가 및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증여는 증여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셈이다. 또한 30억원 이상의 자산을 증여・상속하면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액자산가의 경우 증여를 통해 자산을 자녀 세대에 미리 이전함으로써 적용 세율을 낮출수 있다. 최근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한도 확대(2007년, 3억원—6억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공제 한도 확대(2014년, 3,000만원—5,000만원) 등 세제혜택이 확대된 것도 증여가들어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 증여도 증가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녀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것도 증여가 늘어나는 원인이다. 한국감정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파트 구입자를 분석한 결과, 2015년 55세이상의 아파트 구입전수는 2011년 대비 50%이상 늘어났다. 반면 34세이하의 구입전수는 17% 감소했으며, 35~39세와 40~44세의 구입전수는 각각 8.7%, 9.6% 증가에 고쳤다. 이에 따라 전체 아파트 구입자 중 55세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7.9%에서 2015년 24.1%로 늘어났다. 고령층의 주택구입이 늘고 있는 것은 주택 임대 등을 통해수입원을 늘리려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청년층의 주택구매력이 약화되면서 부모세대가 자녀의 주택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이후 주택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부모세대가 자녀의 주택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이후 주택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부모세대가 자녀거주용으로 매입한 주택을 자녀에게 명의 이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거시경제 부진, 금리상승, 공급과잉 등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시장의 부침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동산의 상속·증여와 관련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자산의 대물림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금융자산 위주인 해외와 달리 한국의 자산가들은 자산의 절반가량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의 효과적인 세대 간 이전이 특히 중요한 이유이다. 반면 향후 거시경제 부진, 금리상승, 공급과잉 등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시장의 부침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동산의 상속・증여와 관련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야 해당 부동산이 추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부동산의 세대 이전은 10년 이상의 기간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체 거래만 해도 다양한 금융 수수료 면제!

새출발 KEB하나은행이 드리는 통합기념 선물

행복Knowhow **주거래우대통장**



국내온행 중 자산규모 1위(2015년 6월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평생 주거래 우대 통장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급여, 연금, 카드대금,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중

기개 양목만 이체애도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②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우대! 급여 또는 연금이체시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 우대 (연 0.1% / 1년제에 한함)

※이 예공은 예공자보호법에 따라 예공보험공사가 보호하다. 보호 만드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공보호 대성 금융성품의 원공과 소청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첫엔당(이며, 첫엔당)을 초고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세만 사랑은 상품살병서 또는 NES아나온영 홈페이지(www.kethera.com)을 참조하시거나 명합점으로 분의바랍니다. 휴법감사인 심사원 2015 광고 2054201509.18

덴마크의 '휘게라이프Life

덴마크는 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까. 덴마크 노인들은 왜 행복할까.

그 이유는 잘 알려진 선진 복지제도는 물론 덴마크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살고,

사랑하는 법에 해답이 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인 휘게라이프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글. 김지은 기자 kjeun1@naver.com

가까운 좋은 사람들과 에너지를 주고받고, 간소한 물건과 느리고 단순한 삶을 살며,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는 덴마크인들의 행복방식을 들여다보자.

유럽연합 통계연구(Eurostat Study)를 보면, 회원국의 74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덴마크 시니어들이 10점 만점에 8.4점으로 유럽에서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평균은 6.8점이다. 보통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면서 죽음이 가까워지면 행복한 감정도 자연히 사그라지는 게 당연하다. 유독 덴마크 시니어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건 어떤 이유 덕분일까. 우선 사회복지모델이다. 안정적인 복지모델이 존재하면서 삶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때문이다.

따뜻, 편안, 함께의 휘게라이프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덴마크인들의 휘게(hygge) 라이프다. 퇴근 후 이늑한 공간에서의 차한잔, 예약만 했는데도 가슴 뿌듯하던 나 홀로 여행, 만드는 과정은 엉망이어도 함께여서 즐거웠던 저녁시간, 이 모든 순간이 '휘게'다. 북유럽 문화권에서 보편적인 삶의 태도다.

덴마크 행복연구소장이자 '휘게 라이프'의 저자인 마이크 비킹은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데는 진짜 이유가 있다"며 휘게를 꼽았다. 휘게는 편안하고 아늑한 상태를 추구하는 덴마크식 라이프스타일을 말한다. BBC방송 등 해외언론이 소개하면서 휘게 열풍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휘게라이프는 가족과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그러한 관계에서 많은 안정과 평온함을 느끼는 등 평범한 일 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들은 가까운 좋은 사람들과 에너지를 주고받고, 간소한 물건과 느리고 단순한 삶을 살며,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긴다. 일상 속에서 휘게를 즐길 수 있는 인테리어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집안에 식물들을 한데 모아 그 자리를 초록으로 물들여보자. 집을 꾸밀 때 몸과 마음 을 충전할 수 있는 휴게소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그 집안만의 추억과 이야기가 담긴 가보를 소중히 배치한다. 심신의 안정과 행복에 필수적인 '조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 밖에도 양초, 책, 재활용 소품, 평화롭고 부드러운 음악, 여행지에서의 기념품,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로 집안 분위기를 꾸며 진정한 휘게라이프를 즐긴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말하지 않았던가. "행복은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커다란 행운이 아니라 매일 발생하는 작은 친절이나 기쁨 속에 있다"고.

01. 분위기

-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한다.

02. 지금 이 순간

- 현재에 충실하라. 휴대전화를 끈다.

03. 달콤한 음식

- 커피, 초콜릿, 쿠키, 케이크, 사탕 더 주세요!

04. 평등

- '나'보다는 '우리'. 뭔가를 함께하거나 TV를 함께 시청한다.

05. 감사

- 만끽하라.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인지도 모른다.

06. 조화

-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든 뽐낼 필요가 없다.

07. 편안함

- 휴식을 취한다. 긴장을 풀고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08. 휴전

- 감정 소모는 그만. 정치에 관해서라면 나중에 얘기한다.

09. 화목

- 추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관계를 다져보자.

10. 보금자리

- 이곳은 당신의 세계다. 평화롭고 안전한 장소다.

휘겔리^{hyggellig}한 삶을

위한 10계명

● 참고도서 :

휘게 라이프,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 / 마이크 비킹 / 위즈덤하우스

은퇴, 버킷리스트 글. 박지연 기자 pjy95@naver.com Future



4박5일 어느 곳엔가 여행을 다녀오면 늘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 여행객으로서 잠시 스쳐지 나가기보다 그 도시에서 잠시라도 느리게 살아보는 것 말이다. '한 달 살기'열풍은 일상적인 여행에서 느낄 수 없는, 생활인으로 그곳에 머물고 싶은 로망 때문 아닐까.

파리에 갔을 때, 여행객이 아닌 현지인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곳의 도 서관에서 하루를 보내고, 조용한 카페에서 느릿느릿 책을 읽으며 노을을 맞고, 세느 강변을 무작정 걸어보는 일. 며칠의 여행으로는 맛보기 힘든, 도시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 각 말이다. 사람들은 잘 해야지만 무언기를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블로그에 글을 써보 라고 해도 "저는 글을 잘 못써요"라고 하고, 호주여행을 계획할 때도 "영어를 못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한다.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발을 떼지 못한 채 자신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 다. 물론 제대로 된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사람 사는 동네인데 못 갈 곳이 어디 있겠어?'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다소 준비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낯선 곳으로 의 여행에 대한 두려움도 사그라질 것이다.

호주에서 한 달살기 01.

한국의 혹독한 겨울, 호주에서의 여름나기

호주에서 한 달살기 02.

항공권은 얼리버드로 끊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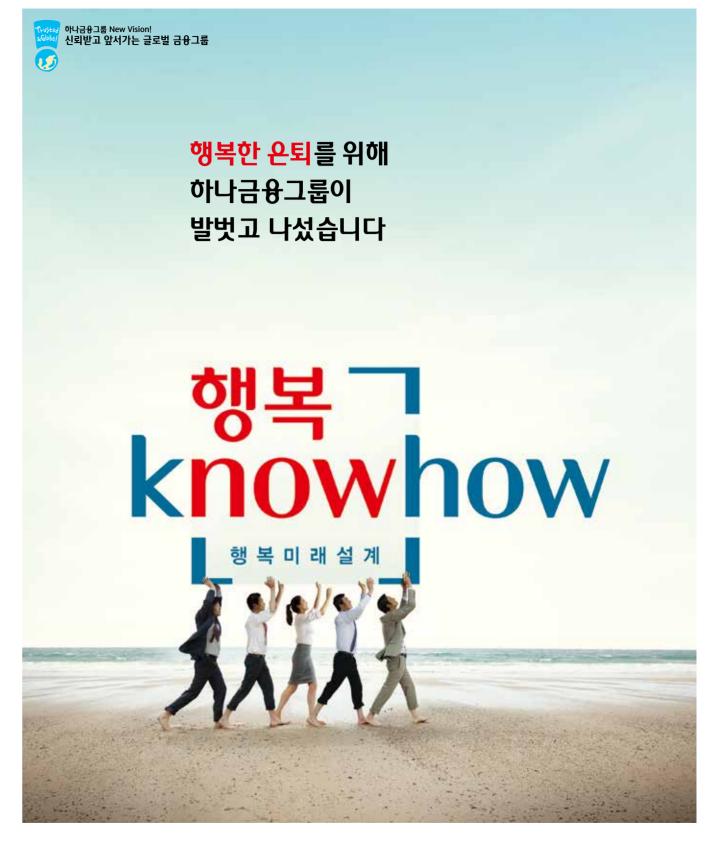
호주에서 한 달살기 03.

에어비앤비에서 숙소 구하기

우리나라의 겨울은 지구 반대편 호주에선 여름이다. 호주는 4계절이 우리나라만큼 뚜렷하 지는 않지만 지역에 따라 날씨가 달라진다. 겨울보다는 여름이 활동하기에도 좋고, 바다에서 놀기도 좋은 만큼 계절적으로는 여름 시즌을 추천한다. 하지만 캔버라 위쪽으로는 더운 만큼 시원한 곳을 찾는다면 멜버른이나 테스메니아 등으로 정하는 게 좋다.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할 상황이 되지 못하고 어린 아이가 있다면 경유로 항공권을 티켓팅하 자. 경유가 더 저렴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기보다 잠시 여유롭게 쉬었다가는 게 덜 힘들 수 있다. 짧은 여행이라면 경유하는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한 달 정도의 여행이 라면 경유나 스탑오버(Stop Over)를 이용해보자. 스탑오버는 경유 항공편에서 경유하는 지 역에 24시간 이상 머무를 수 있다.

한 달 살기를 계획한다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 숙소를 구할 때는 렌트카 이용 여부, 대중교통의 편의성, 지역 도서관이나 편의시설도 살피도록 하자.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골드코스트나 블루미운틴 등 여행계획에 따라 가까운 지역에 숙소 를 정한다면 좀 더 즐거운 경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설계 통합 솔루션 ■ 행복knowhow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용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온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용기관이며, 하나 Sk카드는 부보금용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